

한국인의 유전자

- 기자명 주간 포커스 텍사스
- 입력 2024.10.25 05:32

* * * * *

한국인의 유전자는 미국 주류 정계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. 미주 한인사회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인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(KAI)는 최근 미주 한인 정치연감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다.

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1954 년부터 현재까지 총 231 명의 선출직 한인 정치인들이 배출됐다고 한다. 보고서에 따르면 첫 연방하원의원은 1993 년부터 1999 년까지 활동한 김창준 전 의원이었다.

KAI 에 따르면 이후 225 명 이상의 한인이 지방 정부에서부터 연방정부까지 다양한 선출직에 올랐다. 하지만 한인사회가 피부로 느끼는 미국 주류 정치계의 한국인 유전자는 아직 꽃을 피웠다고 할 만큼 강하지는 않다.

한인 정치인들을 더 많이 배출해야 그 유전자의 힘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인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.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, 정치 후원금을 내고, 한인사회에 우호적인 타문화권 정치인들과 연대해야 한다.

정치 참여로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강화할 때 더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배출될 것이고, 비로소 정치에서도 한국인의 유전자가 꽃을 피울 것이다. 한창 진행 중인 조기투표와 11 월 5 일 본투표가 한국인의 유전자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.

<편집국장 토니 채>